

“혁신형 SMR로 기후변화 제어”

이원욱

혁신형 SMR 국회 포럼 공동위원장



오늘 아침에 일찍 시작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동, 행위에 제약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주신 것에 대해 큰 감사 인사 드립니다.

직전에 영접하면서 선물을 하나 받았습시다.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는 책을 서울대 강건욱 교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리고 특히나 영화 ‘판도라’를 생각하면, 그 공포가 진정으로 과학을 집어삼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 생긴 많은 사회적 갈등들, 특히 신한울 3,4호기, 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들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고 하는 것, 기후변화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고 하는 것이 인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경로로 가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에너지원을 채택할 것이냐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는 SMR이 어떻게하면 제대로 자리를 잡을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해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두가 알듯이 APR1400이라는 세계 최고의 한국형 원자로를 개발한 경험, 그리고 수출까지 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력을 축적한 경험으로 이제 SMR을 개발하여 대한민국 원자력산업을 선도하고, 인류의 가장 큰 고민인 기후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것들을 출발하는 아주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MIF**